구독료 납부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자동이체 신청 및 문의 ☎ (02)730-4488


# 佛敎新聞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7년 3월 13일 (2013년 / 단기 4346년 음력 2월2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895호 수


대승투어 daeseungtour
신심깊은 불자들의 여행사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승투어.com

## 한국불교산업 활성화 견인 '문화축제의 장' 자리매김

### '2013 불교박람회' 개막 첫날 1만여 명 몰려

불교신문이 주최한 '2013 불교박람회'가 개막 첫날 1만 여명이 다녀가는 등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와 나란다 축제 등과 함께 불교대중화를 이끌 종단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같은 열기를 반영하듯 불교박람회 홍보대사인 혜민스님(미국 햄프셔대 종교학과 교수)의 트위터를 통해 접속한 네티즌으로 인해 불교박람회 홈페이지(www.bexpo.kr) 서버가 다운되는 등 최근까지 30만 명이 넘는 이들이 홈페이지를 다녀가며 불교계 안팎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5·6·7면

때문에 종단에서도 앞으로 불교박람회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켜 불교문화의 진면목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일 개막식에서 "불교박람회는 한국불교산업의 활성화와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불교신문, 불광출판사와 종단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막식에 이어 이튿날인 8일 오후 재차 전시장을 방문하며 불교박람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불교신문과 불광출판사가 공동 주최한 불교박람회는 7일 오후2시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불교신문 사장 성직스님,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 서울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 이금복 문화재기능인협회 이사장 등 1만여 명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를 열고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150 단체 220여 부스 컨벤션 산업 이끌어**

**연등회 나란다와 함께 3대 축제로 위상 제고**

이날 전시관 현관 앞에서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과 함께 '관(觀)무용단'은 불교창작무용 공연으로 축제분위기를 한껏 북돋았다. 대회장을 맡은 불교신문 사장 성직스님은 개막식에서 "불교신문은 불교문화가 경제적 가치로 확장된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박람회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컨벤션산업으로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도 "올해 불교박람회는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박람회로 거듭났다"면서 "풍성한 콘텐츠로 구성된 박람회를 통해 불교의 정신을 담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막식에서는 불교문화사업단이 우수콘텐츠상, 불제대원기업이 우수업체상, 차공예협회와 장혁 제이 엔터테이먼트 대표가 각각 공로상을 수상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막식에 이어 전시관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예술, 수행포교, 보시·봉사, 생활, 장례, 건축 등 6가지 주제로 나눈 이번 박람회는 일반·특별부스로 채워진 1관과 힐링강연과 공연, 제1회 붓다아트페어를 만날 수 있는 2관으로 구성돼 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지역사찰은 물론 불교전통문화 산업체, 불교예술인, 불교관련 업체와 불교사회적기업 등 150여 개 단체가 부스 220개를 차려놓은 가운데 오는 10일까지 관람객을 맞는다. 4일 동안 펼쳐질 불교문화축제에는 연인원 10만 여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명실상부 불교계 최대 불교박람회로 자리 잡았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 "절충, 조화의 묘 살려 국정 안정시키길"

### 총무원장 자승스님, 정홍원 국무총리 예방 받고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정치권에 대화와 절충, 통합을 주문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정부조직을 구축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절충, 조화의 묘를 살려 국정운영이 안정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일 취임 인사차 예방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정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이에 정홍원 총리는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지금 화두가 나라의 통합으로 특히 불교계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또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강조했고 불교계에도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있다"며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노력해 발전되기를 희망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등 대치국면에 대해 적잖이 우려해왔다. 앞서 5일 열린 국회 정각회 조찬법회에서도 갈등해소와 대통합을 이야기했으며, 7일에는 조계종 대변인 논평을 발표해 절충과 통합을 강조했다.

조계종 대변인 주경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논평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심각한 형국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여와 야가 다시 한 번 대화와 절충을 통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남북의 정치·군사적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더욱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조직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갈등과 반목, 소통부재로 인하여 국민들의 희망과 행복은 요원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행복은 하나"라며 여야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갈등해소의 길에 대승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간곡하게 요청했다. "상호 배려와 공존의 정치를 통해 남북의 긴장완화와 국민행복의 길을 함께 열어가 주기를 바란다"며 "나라가 화합의 길,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어현경 기자

## '승보공양 실천운동' 본격 가동

### 복지회, 신도들 직접 만나 ARS후원 적극 참여 권유

스님들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걱정 없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승가복지를 책임질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스님, 총무원 총무부장)가 기금 마련을 위한 대대적인 승보공양실천 운동에 나섰다.

승려복지회는 지난 3일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서 열린 조계사 생명살림기도법회에서 승보공양실천운동을 선포하고, 조계사 신도 4500명에게 승보공양 기금 마련을 위한 ARS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승려복지는 33대 총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10대 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11년 3월 승려복지법 제정과 함께 시작됐다.

스님들에게 수행연금을 지급하고 입원비 및 요양비를 지원하며, 종국에는 승려노후복지시설을 세워 간병하는 시스템이다.

종단은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무소임 스님들의 입원비와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다. 2014년 4월부터는 소정의 수행연금을 지급한다.

승려복지회는 보다 많은 불자들이 승보공양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3월부터 대대적인 승보공양실천운동 캠페인을 벌인다. 신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종단 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보장과 보건의료보장, 그리고 노후수행처를 마련하는 ARS 후원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 포교원, 중앙신도회와 함께 3월19일 출가재일부터 3월26일 열반재일까지를 승보공양에 집중하는 정진 실천기간으로 정하고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 승보공양을 주제로 하는 선포법회와 함께 '정진카드'를 신도들에게 배부하여 전국적인 운동에 돌입한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끝 없는 관심'** 2013 불교박람회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개막일인 지난 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앞.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 "나는 불자…부처님 자비 받들어"

### 미얀마 민주화 상징 수지 여사 인터뷰

미얀마(버마)의 비폭력 민주화 운동지도자이자 전 세계인으로부터 '여성 만델라'로 추앙받고 있는 아웅산 수지 여사(사진)는 "험난한 정치역경을 부처님의 가르침인 아비달마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본지는 미얀마 현지시각으로 지난 1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있는 수지 여사의 자택에서 국제구호단체 '하얀코끼리' 일행과 함께 그녀를 인터뷰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02년 당시 본지 사장이었던 영담스님과 수지 여사의 불교신문 창간 43주년 기념대담이 실린 동판을 전달하기도 했다. 불교신문 동판을 받은 수지 여사는 11년 전 일을 기억한다면서 환하게 웃었다. 이 날 인터뷰에서 수지 여사는 여성대통령 박근혜 정부 출범에 관해, "아시아 정치 · 사회 환경에서 여성이 해야 할 역할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국가발전은 정부나 리더에게 의존해선 안된다"고 피력했다. 수지 여사는 또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함축하는 단어를 묻자, 'duty'(의무·본분)라고 답하면서, "버마의 교육 지원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 이 곳 먼나라까지 와주신 한국의 스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4면

미얀마 네피도=하정은 기자


축 취임

(사)인천불교총연합회 제27대 회장에 보월 석종연 스님의 회장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천불교의 새로운 도약과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본 연합회 이사회와 인천지역의 모든 재가불자회도 회장스님과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불기2557년 3월 21일

사단법인 인천불교총연합회
인천불교 재가불자총연합회

인천불교총연합회 각사찰 신도회장단, 인천불교연합합창단, 인천지방청·서 불자회, 인천시공무원불자회, 법원불자회
인천교직원불자회, 인천공항공사불자회, 해양경찰청·서 불자회,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존경하는 인천불교연합회 대덕스님과 재가불자회원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 모두의 화두는 화합과 소통, 그리고 나눔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국가, 종교와 종교, 이웃과 이웃간의 화합과 소통은 모두가 풀어야할 화두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침대로 자비와 평등이 실천 된다면 이 세계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상 세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불자 모두는 이해와 자비로 평등한 세계를 열어가는 길잡이가 되도록 수행하고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동북아의 관문인 이곳 인천에서 열리는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불국정토 건설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삼보님전에 합장 발원 드리며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보월 석종연 합장